

신영증권, 3년 만의 배당금 인상... 최대 수혜자는 '오너일가'

보통주 주당 4500원, 우선주 4550원
지난 3월 기준, 배당금 총 약 361억
자사주 비율·오너 일가 지분 높아
부국·대신증권 비중 과도 지적도

신영증권이 3년 만에 주당 배당금을 인상했지만, 높은 자사주(자기주식) 비율로 인해 실질적 수혜 대상은 오너 일가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내 주주환원 기조가 높아지면서 '오너 회사'인 신영·부국·대신증권 등의 자사주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증권의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날은 전 거래일보다 1.89% 오른 7만5400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신영증권은 보통주 1주당 4500원, 우선주 1주당 4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신영증권이 주당 배당금을 올린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최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배당금 증가로 오너 일가가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로, 약 3년 만이다.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의 배당기준일은 지난 3월 31일로, 배당금 총액은 약 361억원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으로, 주주총회는 6월 21일 예정돼 있다. 다만 신영증권은 자사주비율과 오너 일가의 지분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원국

희 명예회장, 원종석 회장 등의 배당금 수령액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원 명예회장은 보통주 152만3340주(16.15%), 우선주 19만470주(2.72%)를 보유하고 있어 각각 68억5503만원, 8억6664만원 등 총 77억2167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원 회장도 보통주 100만5594주

(10.66%), 우선주 29만8623주(4.26%)를 들고 있어 총 58억8390만원(45억2517만원+13억5873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3월말 기준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율은 보통주의 33.58%, 우선주의 75.11%로 총 51.28% 수준이다. 자사주는 배당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를 제하면 주주들의 실질적 지분율이 오르는 것이다. 결국 배당금 인상을 통한 최대 수혜는 신영증권 오너 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계획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신영증권은 항상 주주가치제고에 앞장 서왔으며, 이를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고객과 주주, 직원 모두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에서 자기주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을 비롯해 부국증권, 대신증권 등은 자사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

다. 각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부국 42.7%, 신영 36.2%, 대신 29.2% 순이다. 세 증권사 모두 오너 회사라는 점과 최근 10년 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은 자사주를 일부 처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대한 목적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사주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높아진 만큼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가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로 증권사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강화됐다"며 "이미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한 증권사들은 향후 자사주 매입 효과 등을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日 정부, 톱다운으로 시장 밸류업 이끌어” “부동산펀드로 고수익”... 유사수신 사기 기승

서유석 금투협회장, 日과 단독 대담
日 증시상승 배경·밸류업 방향성 논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자본 시장 밸류업으로 이어졌다”

토시오모리타(Toshio Morita) 일본증권협회 회장은 지난달 20일 독일에서 진행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의 단독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독일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연차총회를 위해 방문하던 중 이뤄진 것으로 양 협회장은 대담을 통해 일본 증시상승 배경과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일본 증시 활성화가 가능해진 주된 요인에 대해 모리타 회장은 “일본의 경험으로 보아 자본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증권거래소,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며 “특히 기시다 총리 본인이 직접 나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수차례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한 '신(新) NISA 제도'에 대해서는 “올 1월 개편된 일본의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로, 보유한



서유석(왼쪽 두번째) 금융투자협회장과 토시오 모리타 일본증권협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20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협의회에 참석해 대담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엔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 NISA 계좌개설 수가 전년 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 금액도 2.8배 올랐다”며 “신 NISA가 지속 발전한다면 일본 국민의 노후 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 교육 강

화를 들었다. 모리타 협회장은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NISA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금융만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자산운용업 발전의 목표에 대해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 추후에는 자산운용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

아비트리지 거래 등으로 투자자 유인

#.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아비트리지(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거래'로 원금보장은 물론 8시간마다 0.5%라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나 유명인이 홈페이지 광고에 등장하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와 함께 정식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등록회사라고 하는 안내를 보고 거액의 투자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중도 해지를 신청하자 해당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90%를 공제한 후 10%만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그곳은 불법 업체였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4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아비트리지 거래'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안전한 고수익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외 아파트 건축 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자금을 모집했다.

월 환산 57% 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리지 거래 및 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리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zekova@

서학개미, '고공행진' 엔비디아 추격 매수

해외주식 Click

예상치 뛰어넘은 실적·주식분할 발표
순매수 1위 종목... 8843만달러 유입
델 테크놀로지스 등 AI 관련주 '관심'

최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고점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추격 매수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AI) 관련주에 대한 투

자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엔비디아로 8843만달러가 유입됐다. 지난달 22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1분기 실적 및 10대 1의 주식분할 발표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최근에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임에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가 주식 액면 분할을 하면 추가 랠리

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재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은 엔비디아의 높은 성장 지속 여부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엔비디아의 행보는 주주들의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외에도 서학개미들은 AI 관련주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AI 서버로 강자로 주목되는 델 테크놀로지스(6570만달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1100만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운용, 온디바이스AI ETF 836억 기록

국내 상장된 AI·반도체 ETF 중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 온디바이스AI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800억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운용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종가 기준 TIGER 글로벌 온디바이스AI ETF 순자산은 836억 원을 기록했다”며 “상장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룬 성과”라고 4일 밝혔다. 상장일인 지난 달 16일부터 3일까지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270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AI 및 반도체 투자 주식형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온디바이스AI'란 사용자의 기기에서 인공지능 연산이 바로 수행되는 것으로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기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연산을 처리한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없어 네트워크 지연, 보안 문제, 전력 소모 등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온디바이스AI는 앞으로 AI를 개인 비서처럼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기술로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TIGER 글로벌 온디바이스AI ETF는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AI 기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AI폰, AI PC 등에서 자체적으로 온디바이스AI를 연산하기 위한 신경망 연산 장치(NPU)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연산장치 점유율 1위인 ARM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퀄컴과 애플 등을 담았다. /허정윤 기자